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은 전날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Cannabis Act·Bill C-45)을 찬성 54표, 반대 30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간다. 상원에서 수정한 몇 가지 조항을 하원이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원은 지난 2017년 11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대대적으로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다. 트뤼도 총리는 과거 친구들과 함께 대여섯 번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도 있다.

AFP통신은 캐나다가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캐나다의 각 주(州)는 마리화나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법안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부터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했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18세 이상의 개인이 최대 30g의 기호용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 연방법 상으로는 18세 이하의 개인에게는 마리화나 판매가 금지되지만, 각 주 정부는 나이 제한을 저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G7 국가들 중에서 자국 내 마리화나 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아르헨, IMF로부터 500억 달러 구제 금융

국제통화기금(IMF)과 아르헨티나가 7일 500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용자에 합의했다. 페소 가치의 추가 하락을 막고 재정적자 감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니콜라스 두호브네 아르헨티나 재무부 장관은 이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MF와 3년간 유효한 대기협정(Stand-by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MF 역시 이날 워싱턴DC에서 성명을 발표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기 협정은 단기적인 국제수지 악화로 곤란을 겪는 IMF 회원국이 쿼터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별도 조건 속에 추가적 협의 절차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규모로 300억~500억 달러를 예상했으며 아르헨티나는 예상범위 상한치인

500억달러를 지원받게 됐다. 아르헨티나는 자금지원 조건으로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제고 등의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2%에서 1.3%로 낮추기로 했다. 물가상승률도 내년 17%, 2020년 13%, 2021년 9%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의회에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포함한 경제 자구책을 제출하기로 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다른 신흥국으로의 위기 확산에 관해 "IMF는 이 시점에서 다른 국가들로의 부정적인 확산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들어 터키와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자 투자자들은 위기 확산을 우려하며 아르헨티나 구제금융에 주목해왔다.

스페인, 장관 17명 중 11명이 여성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신임 총리가 6일 장관직 17개 중 11개에 여성을 발탁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스페인 역사상 최고 수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남성인 산체스 총리를 빼고는 사실상 여성 부총리와 장관들이 주도하는 여성 파워 내각이라는 점에서 '아마조네스 내각'이라는 말도 나온다. 아마조네스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여전사 부족을 뜻한다.

이번 조각에서 여성 장관들이 맡은 부처를 보면 과격

인사를 더욱 실감할 수 있다. 그동안 각국에서 여성이 장관을 차지하는 부처는 여성, 환경, 가족 등 사회 관련 분야에 치중돼 있었다. 하지만 산체스 내각은 그 편견을 깨고 경제 법무 국방 장관 자리에 과감하게 여성을 발탁했다. 또한 서열 2위인 부총리가 양성평등장관을 겸임하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을 중시하겠다는 총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체스 총리는 6일 펠리페 4세 국왕과 만나 내각 구성을 완료한 뒤 총리 집무실에서 내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새 내각은 남녀평등을 지지하고 전 세대를 넘나들며 세계에 개방적인 인물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